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and Program Name/Ti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ecial programs for January 25th.

TV프로그램 26일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and Program Name/Ti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ecial programs for January 26th.

TV프로그램 27일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and Program Name/Ti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ecial programs for January 27th.

안재욱 “엄지원과의 티격태격 로맨스 기대해주세요”

‘독수리 5형제’...다음달 1일 첫 방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가 생각나는 드라마입니다. 아주 다채로운 사랑 이야기를 담았죠.” (최상열 감독)

개성이 뚜렷한 다섯 형제의 로맨스와 가슴 뭉클한 가족애를 녹인 KBS 주말드라마가 다음 달 1일 막을 올린다.

KBS 2TV ‘독수리 5형제’를 연출한 최상열 감독은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라마다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유쾌한 다섯 커플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다룰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커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커플이라도 취향에 맞으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라마는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만행수로서 ‘독수리 술도가’의 가장 역할을 하게 된 마광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마광숙역에는 배우 엄지원이, 마광숙과 얽히게 LX 호텔 회장 한동석 역에는 안재욱이 나선다.

안재욱은 “KBS 주말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은 ‘아이가 다섯’ 이후 거의 10년 만인 것 같다”며 “대부분을 집필한 구현숙 작가가 넘어져 캐스팅 제의를 해주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인공으로서) 팀이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활연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명랑하고 쾌활하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돌직구를 날리는 성격의 마광숙을 연기한 엄지원은 “티격태격하는 로맨스 케미(호흡)를 기대해달라”고 관련 포인트를 짚었다.

그는 “초반에 안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두 주인공은 ‘적당히 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부딪힌다”며 “두 주인공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저조차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배우 이필모, 최대철, 김동완, 윤박, 이석기가 ‘독수리 술도가’의 다섯 형제로 등장한다.

흥도 많고 정도 많고 녀석 좋은 셋째 오홍수를 연기하는 김동완은 “다섯 형제가 다 골칫덩어리인데, 형제들을 담당하는 여자들이 한 명씩 있다”며 “그 여성들이 저희 형제를 어떻게 도와주고, 저희 삶의 방향을 바꿔나갈지 기대해달라”고 설명했다.

“엄지원 누나가 정말 대장님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해요. 남편을 잃은 한 여자가 집안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신선한 설정 자체가 재미있게 느껴질 겁니다.”

/연합뉴스

